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달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9 (우리모두 함께 모여)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188 (천사의 양식)	6 (찬미 노래 부르며)

제 1독서 사무엘 3,3L-10.19

화답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좌)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우)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좌)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우)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6,13c-15ㄱ.17-2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35-42

영성체 후 묵상 |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우리는 영성체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 외침을 듣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바로 사도는 당부합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Today's Gospel Reading <John 1:35-42>

As John stood with two of his disciples, Jesus passed, and John stared hard at him and said, 'Look, there is the lamb of God.' Hearing this, the two disciples followed Jesus. Jesus turned round, saw them following and said, 'What do you want?' They answered, 'Rabbi,' - which means Teacher - 'where do you live?' 'Come and see' he replied; so they went and saw where he lived, and stayed with him the rest of that day. It was about the tenth hour.

One of these two who became followers of Jesus after hearing what John had said was Andrew, the brother of Simon Peter. Early next morning, Andrew met his brother and said to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 which means the Christ - and he took Simon to Jesus. Jesus looked har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are to be called Cephas' - meaning Rock.

<Short Reflection>

The gospel today is about calling. It is about two men who are already disciples of John the Baptist. John points Jesus out to them: "Look, there is the Lamb of God!"

The disciples begin, perhaps out of curiosity, to go after Jesus. Jesus turns round and asks them: "What are you looking for?"

Generally we tend to think that we should be asking, What does God want? But no, he also wants to know what we're looking for, what we wan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less for His benefit than for ours. Our answer will tell us what our real priorities are with regard both to God and to the people and the world around us. What do we really want from life, and from God?

The disciples asked Jesus another question. They said to him, "Rabbi" (which means Teacher), where do you live?

Jesus, answering their question, says: "Come and see."

Knowing Jesus and where he stays is not primarily a matter of intellectual knowledge. It is not a matter of information. Nor is it a question of knowing all theology. As well,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an expert in all the teaching and the rules of the Church.

Knowing Jesus is a matter of experience. To know him in the Gospel sense is to seek, find and respond to his loving presence in our daily lives, prayer, and the sacraments of the Church (mass).





교황님과 함께하는 교리 교육 - '예수님은 기도의 스승이시다'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힘에 의지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는 점을 전해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정성껏 돌보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를 한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언해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정성을 다할수록 삼위일체적 친교 안에 머물러 쉬어야 함을, 성부와 성령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트기 전이나 밤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내밀함, 곧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안식일에 카파르나움의 한 마을에서 날이 저물고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자들을 모두 데려왔고,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외딴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다”(마르 1,35-38 참조). 아버지와 함께 기도 안에서 더 멀리 나아가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마을을 넘어,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방향타’입니다. 그분 사명의 여정을 좌우하는 것은 성공이나 동조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편치 않은 길이지만, 그분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듣고 받아들이신 아버지의 영감에 순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몇 가지 특징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갈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줍니다. 기도 없이 보내는 하루는 귀찮고 지루한 경험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요. 하루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맹목적인 운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문제들은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만나라는 하느님의 호소가 됩니다. 이처럼 삶의 시련들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바뀝니다. 노고를 포함한 일상의 여정은

“소명”의 관점을 연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큰 지평으로 넓히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라” 우리 모두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훈련과 수련을 해야 하는, 삶의 규칙 내에서 익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한결같은 기도는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환난의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고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곳에서 침묵 가운데 내면 깊숙이 숨겨진 많은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억압된 욕망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불편한 진실들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각자 내면의 삶을 길러 나가고, 자기 행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내면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피상적이고, 동요하고, 불안에 떨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면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도망치고, 언제나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거나,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잃거나, 아니면 이리저리로 휩쓸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맺는 관계에서 올바른 차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요하고 조금은 걱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시고,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공지 사항

1. 유아세례 신청 안내

* 본당 연락처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유아세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아세례는 우리 한인성당 주일미사 중에 베풀어집니다. 유아세례는 세례를 받는 아이가 본당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한 신자분들 각자가 세례 때 베풀어진 은총과 선물을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며, 아이와 가족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 세례 날짜는 성당 일정을 보고, 주임신부와 조율하여 정합니다.

* 유아세례 날짜가 정해지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1달 이상 주일미사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아세례 신청 후 필요한 서류 및 사항

- 부모님께서 가톨릭 신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톨릭 세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신자여도 가능합니다.)

- 영문 세례증명서 발급 및 본당 세례 대장의 등록을 위하여, 'Baptismal Request & Promise Form' 이 필요합니다.

(유아세례를 신청하시면, 위의 영문 Form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대부모님(God Parents)은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분들 중 정해주시면 됩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2/30	유아·청소년: 10명	성인: 44명
1/7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53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14)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1/21)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14)	루카반
다음주 (1/21)	마르코반

| 우리들의 정성 | (1/6 ~ 1/12)

봉 헌 금	\$385			
교 무 금	\$620			
권묘순	김정수	김천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전인철
주정자	항병욱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